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성(母性)인식*

-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의 「二. 우유(牛乳)」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모친 후쿠(フク)의 삶 |
| 2. 작품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 5. 「二. 牛乳(우유)」 |
| 3. 아쿠타가와(芥川)의 사소설과 그 경향 | 6. 결론 |

主題語: 아쿠타가와 류노스케(AKUTAGAWA), 다이도지 신스케(Daidouji Sinsuke), 사소설(Private life novel), 우유(milk), 모성인식(Maternal Awareness),

1. 서론

아쿠타가와(芥川)는 생후 7개월 무렵, 어머니 후쿠(フク)의 정신발작으로 외가인 아쿠타가와 가(家)에 맡겨져 양육되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열한 살 때 모친은 사망하지만 모친으로부터 받은 아쿠타가와(芥川)의 정신적 장애는 심각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이전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친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중년의 단편 『소년』을 통해 검토한 바 있으며, 결론적으로 모친에 대한 이해와 사모(思慕)의 감정이 최초로 보여지면서 인식적 변화를 가져온 시점적 작품이 『소년』이라는 것을 고찰한 바 있다.¹⁾

본 연구는 이상의 검토에 이어 두 번째 고찰로써, 모친을 둘러싼 아쿠타가와(芥川)의 인식변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과정 전개의 의미 고찰을 위해, 특히 아쿠타가와(芥川)의 만연의 사소설적 작품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중, 단락 「二. 우유(牛乳)」를 통해 이하, 그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20A055)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부교수

1) 감영희(2020)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친인식(母親認識)-保吉物(야스키치모노)『소년(少年)』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어교육학회』94집

아쿠타가와는 생후 7개월 무렵, 모친 후쿠(フク)의 정신발작으로 외가인 아쿠타가와가(家)에 맡겨져 양육되었다. 그리고 나이 열한 살 때 모친은 사망하지만 모친에게서 받은 아쿠타가와와 정신적 장애는 심각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하기 한 해 전 아쿠타가와와는 모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상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 엄마는 광인이었다. 나는 엄마에게서 얼마나 친밀감을 한 번도 느낀 적 없다. …중략… 이런 나는 엄마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분명하진 않지만, 양모와 함께 엄마가 있는 2층으로 한 번 인사를 갔지만, 갑자기 곧바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억이 있다. (うちの母は氣違ひだった。私は母に対して決して親しみを感じたことはない。… 中略 … このような私は、私の母から全く世話を受けたことがない。何でも一度うちの養母とわざわざ2階に挨拶に行っただけどいきなり髪を長煙管で打たれたことを覚えている。『点鬼簿』)”²⁾

만년의 아쿠타가와는 신경쇠약으로 인해 환청과 환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한 체험은『툼니바퀴(齒車)』『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등 후기 대표작의 한 모티브로 작용하였다. 아쿠타가와는 언젠가 모친처럼 자신도 정신장애를 겪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러한 경향을 모친의 탓으로 여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쿠타가와와 유서에는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나(아버지)처럼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에 특히 유의하도록 해라. (君たちは、みんな君たちのお父さんのように、神経質になるしかない。特に、その事実にはをつける「自分の子供たちへ。’) ”

라고 하여, 생모의 정신장애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운명처럼 모친의 정신 발광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아쿠타가와에게 몇 안 되는 모친과의 기억 중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우리) 어머니는 매우 침착한 광인이었다. 나와 누이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4절의 반지에 그림을 그려준다. 그림은 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 누이의 물감으로 행락가의 자녀의 옷이니, 초목의 꽃이니 생각하며 뿌려준다. 다만 그림 속 인물은 모두 여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私の母

2) 芥川竜之介(1987)『昭和文学全集』第1巻、小学館. 본 작품은 아쿠타가와가 신경쇠약을 비롯한 신체장애로 창작활동이 특히 저조하던 시기에 쓰여진 자서전 풍의 작품.

は、とても冷静な狂人だった。私と私の姉などが、絵を描いてくれと言うと四つ折の半紙に、絵を描いてくれる。絵は墨だけを使ったのではない。私の姉の絵の具を、行楽家の子供の服だの、草木の花だのと思って、撒いてやる。ただ、その絵の中の人物は、皆、キツネの顔をしていた」(『点鬼簿』)³⁾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아쿠타가와와 일생에 있어서 그의 모친이 아쿠타가와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그의 만연의 사소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의 단락「二. 우유(牛乳)」를 통해 그 관련성에 대해 이하, 검토하고자 한다.

2. 작품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은 아쿠타가와와 단편소설로 1925년(大正14년) 1월 1일 『중앙공론(中央公論)』에 게재된 만년의 미완성 작품이면서 반자전적 소설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아쿠타가와를 연상하게 하는 주인공 신스케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일생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제(副題) 「정신적 풍경화(精神的風景画)」에서 드러나 있듯이, 주인공인 신스케의 이야기라기보다, 부제와 관련된 단락이 6장이나 되며 후기에 「앞으로 3, 4부는 계속 써 내려갈 생각(あと三四回は続けるつもりで)」이라고 하고 있지만 「공허(空虚)」 「염세주의(厭世主義)」 2개 장(章) 이후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일반적으로 「야스키치 모노(保吉物)」류 작품은 그의 자전적 고백소설군으로 불리며 약 10여 편⁴⁾에 이른다. 그중 아쿠타가와 자신을 최초로 성찰하고자 한 『다이도지 신스케(大導寺信輔)』는 특히 자전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개요를 살펴보자.

1장. 혼조(本所)

아름다운 도시의 거리는 항상 그를 짓눌렀으며, 시골의 자연은 그의 흥미를 이끌지 못했다. 다이도지 신스케는 자신이 태어난 혼조(마을)를 사랑했다. 혼조는 아름다움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하지만 꽃을 이은 지붕과 웅덩이에 비치는 봄날의 구름은 그에게 애처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그것은 어쩔 연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마을 혼조를 사랑했다.

3) 芥川竜之介(1987)『昭和文学全集』第1巻、小学館

4) 『手巾』 『女』 『偷盗』 『母』 『少年』 『大導寺信助輔』 『点鬼簿』 『西方の人』 『續西方の人』 『歯車』 『或阿保の一生』 등

2장. 우유(牛乳)

신스케는 몸이 허약했던 어머니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의 젖을 수유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자란 자신의 운명을 싫어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늘 열등감과도 같았다. 몸이 약한 것을 운명 탓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그들이 도전하면 언제라도 응했다. 그러다 로마의 건국자 영웅 ‘로물루스’도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열등감은 점차 사라졌다. 이후 신스케는 목장의 소(牛)의 눈에서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3장. 빈곤(貧困)

그의 집은 가난했다. 그렇다고 극심한 빈곤은 아니었다. 가난해도 체면만은 차려야 하는 중산층 레벨의 빈곤이었다. 신스케는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여러 핑계로 용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자신의 거짓말이, 어떻게든 체면을 생각하는 부모의 거짓말만큼이나 불쾌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만큼 신스케는 가난을 증오했고 있었다.

4장. 학교(學校)

신스케의 기억 속 학교는 온통 싫은 것 투성이다. 그는 학교 공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인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래 빈곤을 벗어나려면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신스케는 교사가 싫었다. 아니 미웠다. 교육상의 책임, 혹은 특히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을 폭군으로 만들었다. 그는 교사에게 반발했다. 그러므로 시험은 고득점이었으나 소행(素行)점수는 항상 낮았다. 따라서 전체 평가도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학교에서 늘 고독했다.

5장. 책(本)

신스케는 책을 좋아했다. 책에 대한 열정의 시작은 초등학교 시절 읽은 ‘수호지’에서 비롯되었다. 『카라마 조프 형제』 『햄릿』 『돈주앙』 『파우스트』 등,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었지만, 가난했던 신스케는 마음대로 책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과 책방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책을 사기 위해서 절약도 하고 또 과외 를 하기도 했다. 어느 헌책방에 자신이 내다 팔았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다시 되찾아 사 왔을 때의 기억은, 신스케에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6장. 친구(友だち)

신스케는 친구가 없었다. 자신과 어울리는 소질이 있든 없든, 그에게 있어 타인은 길에서 스쳐 지나는 사람과 다름없었다. 그는 남과 더불어 하는 친밀감 따위의 정감이나 소통은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똑똑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에게서도 타인처럼 증오를 느꼈다. 아무튼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본 작품은 전술하였듯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반자전 소설, 고백소설 혹은 사소설류로 알려진 작품이다. ‘호리카와 야쓰키치(堀川 保吉)’를 주인공으로 하는 「야쓰키치 모노(保吉物)」에 속한다. 하지만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속의 주인공 신스케는, 아쿠타가와와의 성장 과정과는 달리 입양되지도 않았거니와, 그 외 사실적·경험적 사건 등에서도 사실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기시다 히데오(岸田 秀)는 ‘(아쿠타가와)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절필되었다⁵⁾는 심리학자적 분석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을 읽다 보면, 애써 길을 찾아 헤매는 당시 아쿠타가와와의 고민이 느낌으로 전달되어 온다.

3. 아쿠타가와와의 사소설과 그 경향

사소설은 메이지(明治) 이후, 특히 다이쇼(大正), 쇼와(昭和)를 거쳐 종전까지 일본 문단을 장악한 장르라고 할만한 일련의 사소설가로 보여지는 작가들에 의한 자전적, 신변 잡기적 심경적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아쿠타가와와의 사소설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아쿠타가와와의 초, 중, 말기의 작품들은 꽤 다른 차이를 보인다. 『툽니바퀴』등의 말기 작품은 거의 자전적 내용의 사소설적 경향이 강하다. 다만 형식이나 글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다른 작가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곧 후술하겠지만, 아쿠타가와가 작품 활동을 하던 당시 일본문단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로부터 시작된 사소설적 경향이 크게 지배하던 시기였다. 아쿠타가와 역시 소세키 문하에서 공부했지만, 자살 전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만년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단의 대세적 흐름에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다이쇼 8년(1919)부터 9년(1920)에 걸쳐 역사물에서 현대물로의 작품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그에 게는 하나의 작품적 정체기라 할 시기였다. 그 탈피의 한 방편이 자신의 신변이야기를 다루는 사소설(私小説)적 경향의 작품이었다. 다만 아쿠타가와와의 사소설은 사소설이라고 해도 자연주의적 흐름을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그 스스로는 사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5) 岸田 秀(1991)『群像日本の作家芥川龍之介-芥川龍之介論ニシズムの破綻』小学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사소설이 아니다. 일본 문단에 사소설로 이름난 여러 많은 저서에서 먹칠을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異議を唱へるのは決して『私』小説ではない。日本の文壇に多い私小説の諸名篇に泥を塗ることはしない。)”⁶⁾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즉 아쿠타가와는 사소설적 경향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과거나 체험 등을 고백하거나 혹은 폭로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보증하는 등의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소설의 소재일 뿐이며, 소설의 자율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자세는 아쿠타가와와 고백적 소설관이었음을 알 수 있게한다. 이 점에서 일반 사소설과는 다른 그만의 사소설적 경향으로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던 그도 마침내 만년에 들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심경 등을 소설 속에 드러내는 이른바 사소설 경향이 짙은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아쿠타가와는 35세에 사망했으므로, 대체로 30세 이후를 만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아쿠타가와는 신경쇠약 증세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 시기 이야기 중심의 단편소설은 집필하지 않으면서 ‘야스키치 모노’로 불리는 자서전적 사소설을 선보이게 된다. 『다이도지 신스케(大道寺信輔)』 『툽니바퀴(齒車)』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保の一生)』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또 비교적 긴 작품으로서 자살하던 해 쓰여진 『갯과(河童)』를 들 수 있다. 갯과는 어른 대상의 동화같은 작품으로, 자살을 염두에 두었던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드리워지는 죽음의 예감에서 예전처럼 묘사에 주력했던 작품은 더 이상 그려낼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극심한 신경쇠약이 자살 동기 중 하나라고 한다면, 만년의 작품 등을 통해 아쿠타가와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3인칭 단편소설로 아쿠타가와 자살 6개월 전 쓰여진 작품 『겐가쿠산보(玄鶴山房)』에는, 5장에서 주인공 겐가쿠의 시점으로 ‘산다는 것의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이 작품 역시 죽음에 임박한 상황 때문인지 짧은 단문의 문장이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⁷⁾

『어느 바보의 일생』은 1927년 아쿠타가와 자살 후 발견된 작품으로, 1927년 잡지 『개조(改造)』 10월호에 게재되었다. 51개의 극히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쿠타가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긴 일종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다. 그 외 기독교적 시선에서 바라본 『서방인(西方の人)』과 『속 서방인(続西方の人)』, 또 경구(警句)와 잠언(箴言)으로 이루어진 『수유지 말(侏儒の言葉)』 등이 있다. 이러한 만년 작품들의 공통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6) 芥川竜之介(1925)『私』小説小見-「藤澤清造君に」評論『新潮』

7) 1927년 잡지 『중앙공론(中央公論)』 1월호

고뇌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냉소적이며 죽음을 직전에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쿠타가와와 자살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다이쇼 14년(1925) 구메 마사오(久米 正雄)와 아쿠타가와 사이에 있었던 사소설과 관련된 작은 논쟁이 있었다. 다이쇼 14년 6월 아쿠타가와는「사소설에 대하여」및 동년 10월「사소설론 소견(私小説小見)-후지사(後地)와 세이조(藤沢清造)군에게 답하다」의 문장을 통해 사소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중략… 사소설이 사소설인 까닭은 그저 그 ‘작가의 실생활을 그린’ 것, 즉 자서전이라는 것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서전이라는 것은 서정시보다 복잡한 주관적 문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서정시와 서사시의 구별은, 주관적 문예와 객관적 문예와의 차별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양적인 표준에 따른 벽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소설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본격소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설이 사소설인 까닭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만약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사소설 중의 어떤 사건은 작가가 실생활 중 어떤 사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존재해야 합니다. 사소설의 사소설인 이유는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中略…私小説の私小説たるゆえんは、ただその「作家の実生活を描いた」こと、即ち自叙伝たることに存するというわけ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また自叙伝であることは抒情詩よりも複雑な主観的文芸であることであります。僕は抒情詩と叙事詩の区別は、主観的文芸と客観的文芸との差別は本質的に存在しない、ただ量的な標準に従った貼札であると云いました。とすれば私小説も同じように本質的に「本格」小説と少しも異なっていないはずであります。従って、私小説の私小説たる所以は本質的に全然存在しない、もし何処かに存在するとすれば、私小説中のある事件は作家の実生活中のある事件と同一視出来るという事実の中に存する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私小説の私小説たる所以は「嘘ではない」ことであります。)⁸⁾

아쿠타가와와 이 평론은 그의 비평가적인 안목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상당히 정확하게 사소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분석한 것으로 판단생각된다. 이에 대해 구메 마사오 측도 동년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⁹⁾

당시 일본에는 사소설이 발달하고 있었다. 일본형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할 이른바 일본의

8) 芥川龍之介(1987)『芥川龍之介全集』8, 筑摩書房: 東京, p.121

9) 久米正雄(1925)「私小説と心境小説」『文芸講座』, p.56

「それによれば、芸術は人生の創造ではなく、たかがその人の歩んできた一人生の再現でしかない。すべての芸術の基礎は『私』にある。…中略…真の意味の『私小説』は同時に心境小説でなければならない。(그에 따르면 예술은 인생의 창조가 아니라 기껏해야 그 사람이 걸어온 한 인생의 재현일 뿐이다. 모든 예술의 기초는 나에게 있다. …중략…진정한 의미의 “사소설은 동시에 심경소설이어야 한다.”

사소설은 일본문학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방향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어둠과 같은 치부(恥部)를 향하게 될 때, 자살을 추구하는 일련의 소설도 생겨났을 것이다. 만년에 있어서 아쿠타가와 사소설은 그러한 방향성을 일면을 그야말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아쿠타가와와는 사실 사소설이나 고백소설을 아주 싫어했던 인물이다. 그것은 전술하였듯이 소세키의 문하시절 문단의 사소설적 흐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사소설적인 글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죽음을 앞두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충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4. 모친 후쿠(フク)의 삶

광인(狂人)으로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다 간 어머니 후쿠의 존재는 아쿠타가와에게는 평생 번뇌의 대상이었다. 누이 히사코(久子)는 어머니 후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극히 소심한 성격의 어머니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두는 성격이었다. 언제인가 연극을 함께 보러 갔을 때, 엄마 혼자 하쓰코 언니를 데리고 신주쿠로 놀러 갔지만, 그때 문득 걸린 감기로 뇌막염을 앓던 하쓰코는 7살 되던 해 운명을 달리했다. …<중략>… 그때 자신이 신주쿠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하고 크게 탄식했다. 익년 아쿠타가와를 출산했으나 어쩔 도리 없이 아이를 내칠 수밖에 없는 33살 액년의 해를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중략>… 아무튼 그러한 일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母という人は、とても気が小さかった人で、口に出すより自分の胸にたたんでいる、という性質らしかった。ある時、皆して芝居に行ったとき、自分一人だけ新宿へ姉初子をつれて遊びにいったが、その時フト風邪を引かしたのが原因で、脳膜炎で七歳のとき亡くし…<中略>…その時、自分さえ新宿へいかなければと、大層気になげきたる由、続いて翌年竜之介出産。仮にもその子は、捨て子をしなければならぬ三十三の厄年を、どんなに苦にしていたことでしょう。…<中略>…とにかく、こんな事が病気の原因だと思われます。)

아쿠타가와가 태어난 해는, 부친 42세 모친 33세로 남자와 여자의 액년이 동시에 몰린 소위 대액(大厄)의 해였다. 따라서 전해 내려오는 관례적 미신으로 인하여 비록 형식적이라도

버려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생부였던 니하라 토시쥬(新原俊三)는 목장운영을 하는 축산업자로 꽤 큰 우유판매업을 하는 사업가였다. 당시로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부심 또한 강했던 부친은 성실하고 의리가 있으며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지만, 때로 신경질적인 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고 한다. 내성적이던 모친 후쿠는 그러한 성격의 남편과 살면서, 장녀인 하쓰에가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마음의 고통과 더우기 자신의 장남마저도 버린 아이로 키워져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지 가히 짐작된다. 그리고 메이지25년(1892) 10월 마침내 돌연 발광하고 만다. 아쿠타가와 생후 겨우 7개월 무렵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광인이었다. 한 번도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모친다운 친숙함을 느낀 적이 없다. 어머니는 빗으로 머리를 말고서 잔디가 있는 외가에 언제나 홀로 앉아 긴 곤방대로 ‘빠끔 빠끔’ 담배를 피워댔다. 얼굴도 작지만 신체도 작았다. 얼굴은 어째서인지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회색 빛이었다. 언젠가 나는 세소키(西廂記)를 읽으며 ‘흙 냄새나는 진흙 맛’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문득 모친의 여위어 가늘어 빠진 옆얼굴이 떠올랐다.(僕の母は、狂人だつた。僕は一度も、僕の母に母らしい親しみを感じたことはない。僕の母は、髪を櫛巻きにいつも芝の実家に、たつた一人坐りながら、長煙管ですばすば煙草を吸っている。顔も小さければ体も小さい。その又顔はどう云ふ訳か少しも生気ない灰色をしている。僕はいつか「西廂記」を読み、土口氣泥臭味¹⁰⁾の語に出会つた時、忽ち僕の母の顔を痩せ細つた横顔を思ひ出した。)¹¹⁾

『덴키보』(다이쇼15년/1926)에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거부해왔던 광인이었던 친모에 대해 이상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모친은 ‘진흙 맛’을 떠올리는 사람이었으며, 긴 담뱃대로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기억 속 인물이었다. 그의 모친은 그의 나이 10세 때 타계했다.

나는 그다음 날 밤도 어머니 머리맡에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어젯밤처럼 눈물은 조금도 흐르지 않았다. 나는 거의 울음을 그치지 않는 누나 앞에서 웬지 부끄러워 열심히 우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僕はその次の晩も、僕の母の枕もとに、夜明近くまで坐っていた。が、なぜかゆうべのように少しも涙は流れなかった。僕は殆んど泣き声を絶たない、僕の姉の手前を恥じ一生懸命に泣く真似をしていた。)¹²⁾

10) ‘흙냄새 맛은 진흙 맛’이라는 뜻

11) 芥川竜之介(1926)『点鬼簿』『昭和文学全集』第1巻、小学館

12) 芥川竜之介(1926)『点鬼簿』

아쿠타가와는 모친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우는 흉내는 내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자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가끔 나는 환상처럼 어머니인지 누이인지 알 수 없는, 40 전후의 한 여인이 어디선가 나의 일생을 지켜주는 것 같이 느낀다. (僕は時々幻のように僕の母とも姉ともつかない、四十才恰好の女の人が一人どこから僕の一生を見守っているやうに感じている。)¹³⁾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애처롭게 죽음을 맞이한 누이 하쓰코(初子)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살아 있었다라면 40을 훌쩍 넘겼을 첫째 누이의 얼굴이, 어저면 친밀감이라고는 느낀 적 없는 어머니와 닮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생각은 신경쇠약이 빚은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쿠타가와는 언젠가는 자신도 모친처럼 발광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염, 치질, 신경쇠약 등, 중국 북경 여행 당시의 배탈이 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다이쇼 10년(1921)이후 신경쇠약 증세는 더욱 악화, 이후 자살하기까지 그러한 증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모친이, 그의 뇌리 가운데 자신이 불러보고 싶은 인물로 어머니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토록 거부해 왔던 광인의 친모에 대해 스스로 고백할 정도라면, 이성적으로는 더 이상 거부할 기력조차 없을 만큼의 극도의 쇠약 상태였다는 것은 추론 가능하다. 광인이었던 어머니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발광을 막는 길이라고 스스로의 의지와도 같았던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를 잃은 아쿠타가와는 다이쇼 15년(1926) 4월15일, 오아나 류이치(小穴隆一)¹⁴⁾에게 자살할 결심을 전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텐키보』를 발표한 아쿠타가와는, 세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이 쓰였던 나머지 스스로 고백을 결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살 후 세상에 회자되며 어차피 폭로될 일이라면 부끄러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고백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지 모른다.

아쿠타가와와 자전적 작품으로 다음 세 작품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이쇼 13년(1924)의 『소년』이며, 두 번째는 다이쇼 14년의 『다이도지 신스케의 탄생』, 세 번째가 1927년 유고집 『어느 바보의 일생』이 그것이다.

세 작품을 잠시 비교해 보면 『소년』은 아쿠타가와 자신의 과거 추억적 작품으로서 인상적인 몇 개의 기억을 회상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3) 芥川竜之介(1926)『点鬼簿』

14) 서양화가. 수필가. 아쿠타가와가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구게누마(鵜沼)의 여관을 빌려 거처할 때, 인접한 방을 빌려 살았다고 함. 1927년, 아쿠타가와가 아이들에게 「小穴隆一を父と思へ。従つて小穴の教訓に従ふべし」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후 친족들과 친밀히 교제함.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속 아쿠타가와와 흡화들은 작가로서의 그의 현재(당시)의 입장이 상당히 동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현재와 과거는 상호 교차되면서 미래의 갈 길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이 작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반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어느 바보의 일생』은 이미 인생이라는 종점에 이른 사람의 회고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흡화는 일제히 마감하는 생을 향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 아쿠타가와와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흡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소년』의 무의식적인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흡화이다. 그리고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중 그려진 흡화는 가장 괴로운 흡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무리 허구가 섞인 자전적 작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심경적 사소설적 경향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했었을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아쿠타가와와 모친은 그를 3월에 낳고 7개월 후 10월에 발광, 그의 나이 11살 때 유명을 달리했다. 아쿠타가와와는 어머니의 친정 아쿠타가와가에 양자로 받아들여졌으며, 어릴 적 그의 회상 속 모친은 언제나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회색빛을 띠었으며, 그 회색빛은 그대로 『어느 바보의 일생』의 회색 옷을 입은 광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아쿠타가와가의 오아나류이치(小穴隆一)에게 보낸 유서에는

‘나도 다른 모든 청년들처럼 여러 꿈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결국 광인의 아들이었을 뿐이지.(僕もあらゆる青年のやうにいろいろの夢を見たことがあつた。けれども今になつて見ると、畢竟氣違ひの子だつたのであらう。)’¹⁵⁾

라는 대목을 통해, 그가 얼마나 모친의 광기에 대해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5. 「二 牛乳(우유)」

아쿠타가와 인생 제1의 비극은 모친 후쿠와 부모자식 간이 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광인의 자식’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를 괴롭혔던 굴레와도 같았다. 누구도 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며, 더구나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원래

15) 底本(1998)『芥川龍之介全集』第二十三卷、岩波書店

병약한 몸인 아쿠타가와와는 중국 여행 전 독감에 걸렸고, 이것이 상하이에서 재발하는 바람에 입원해야 했다. 이후 그의 몸은 점점 병마에 시달리게 된다. 위장장애로 시작된 그의 병은 치질, 신경 쇠약 등으로 침식되어 갔으며, 그리고 신경쇠약이 초래한 불면증은 다량의 수면제 복용을 유발하게 된다. 수면제의 상습복용은 아쿠타가와와의 신경쇠약을 더욱 악화시켜 환각 증세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은 아쿠타가와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주인공 신스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의 삶의 회고 혹은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편이다. 전문은 「一. 本所(본소재지)」 「二. 牛乳(우유)」 「三. 貧困(빈곤)」 「四. 學校(학교)」 「五. 本(책)」 「六. 友だち(친구)」의 6개의 장으로 성립된다.

모친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락으로 특히 「二. 牛乳(우유)」에는 주인공 신스케의 모친이 병약하여 그가 출생한 이래로 단 한번도 모친의 젖을 수유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의 수유도 받지 못한 아쿠타가와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중첩된 부분으로써 신스케가 아쿠타가와 자신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

한편, 아쿠타가와와의 이전 작품 중 정신병자인 생모에 대한 투영은 없었다. 다만 “신스케의 모친은 몸이 약하다(信輔の母は体が弱い)”라는 설정만은 있었다.¹⁶⁾ 이는 곧 아쿠타가와와는 작품 중 생모에 대한 고백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고백의 충동을 억제하면서 침묵하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작품 속 신스케는 ‘수유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줄곧 신경을 쓰면서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이 약한 것도 우유 탓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약함이 드러나면 끝까지 그 비밀을 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도전에도 응하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때는 다케쿠라의 큰 도랑을 장대도 사용하지 않고 날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에코인의 은행나무를 사다리로 오르기도 했다. 어느 때는 또 그들 중 한 명과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다. -중략-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용감하게 그들을 정복했다. 이 스파르타식 훈련은 그의 오른쪽 무릎 머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ある時はお竹倉の大溝を棹も使わずに飛ぶことだった。ある時は回向院の大銀杏へ梯子に登ることだった。あるときはまた彼らの一人と殴り合いの喧嘩をすることだった。-中略-しかし彼はその度に勇敢にそれらを征服した。このスパルタ式の訓練は彼の右の膝頭へ一生消えない痕跡を残した。)¹⁷⁾

16) 김영희(2020)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친인식(母親認識)-保吉物(야스키치모노) 『소년(少年)』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어교육학회』 94집, p.120

17) 芥川竜之介(1987) 『芥川竜之介』 5, p.423

모유를 모른다는 것(母乳をしらないこと)이 신스케에게는 심각한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단락은 신스케의 경험이지만 이 역시 아쿠타가와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묘사,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모유를 수유받지 못한 기억은 일종의 수치이며 열등감 즉 콤플렉스였던 것이다. 아쿠타가와에게 ‘모유를 수유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성의 존재나 온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는지 모른다. 즉 생모 부재의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모유 수유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정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오히려 아쿠타가와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모성에 대한 기대나 동경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그의 모성사모의 심리적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스케는 서양사에서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Romulus)¹⁸⁾에게 젖을 물린 것은 늑대이다’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¹⁹⁾ 모유 수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도 있으며, 더구나 로물루스는 ‘모유 수유에 대한 기억이 없어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은연중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바로 아쿠타가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침내 신스케는 모유 수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점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신스케는 어느 날 숙부가 경영하는 목장에서 소의 머리를 보게 된다. 그때,

문득 이 소의 눈동자 속에 뭔가 인간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공상? 혹은 공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큰 흰 소 한 마리가, 꽃을 피운 살구나무 가지 아래 선반에 기대어 선 그를 올려다보고 있다. 절실하게 그리운 듯이. (ふとこの牛の瞳の中に何か人間に近いものを感じた。空想?—あるいは空想かもしれない。が、彼の記憶の中には未だに大きい白牛が一頭、花を盛った杏の枝の下に棚のよった彼を見上げている。しみじみと、懐かしそうに。)²⁰⁾

이에 대해 기쿠치 히로시(菊地弘)는 ‘恋する母の姿が“精神的風景”のうちに擬人化された白牛に託されている。(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신적 풍경’ 속에 의인화된 흰 소에게 의탁되고 있다.)’²¹⁾고 기술했다. 묵묵하고 커다란 소의 눈동자를 통해 인간에 가까운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풍자함으로써, 만약 신스케를 아쿠타가와라고 간주한다면 그는 의인화된 흰 소의 눈동자로부터 어린아이에 대한 모친의 자상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느꼈는지

18) 전설상의 로마 건국자. 군신 마르스(Mars)와 레아 실비아(Lea Sylvia)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쌍둥이 동생 레무스(Remus)와 함께 버림받았으나 이리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함.

19) 芥川竜之介(1987)『芥川竜之介』5、筑摩書房、p.424

20) 芥川竜之介(1987)『芥川竜之介』5、筑摩書房、p.424

21) 菊地弘(平成6年)『芥川竜之介—表現と存在』明治書院、p.100

모를 일이다. 여기서 묘사된 모자(母子)적 감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더 아쿠타가와와 모성인식 및 모성관은 증명된다. 결국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에서 아쿠타가와는 생모에 대해 고백하고 싶었으나, 최종적으로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는 종래 언급하지 않았던 숙명적 모성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삶 속에 숨겨져 있던 모성에 대한 하나의 인식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친과의 관계 상징 ‘외동인 그(一粒種の彼)’에 대해 검토해 보자.

어린 시절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키가 크게 자라니까’라고 하며 우유를 마시게 한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와 경우, 자신이 병약한 신체가 된 것은 모유가 아닌 우유로 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더구나 그러한 사실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스케는 전혀 생모로부터 수유를 받지 못한 소년이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모친은 외동인 그를 생산한 바로 직후에도 단 한 방울의 젖도 먹이지 못했다. 아쿠타가와가 생모의 젖을 단 한 방울도 먹지 못했던 것은 모친의 발광(發狂)에 의한 것으로 ‘元來体の弱かった母(원래 몸이 약했던 어머니)’라는 기술은 도리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一粒種の彼’라는 말은 더구나 류노스케와 모친과의 관계를 추상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몸이 약했던 모친은 외동인 그를 생산한 후에조차, 한 방울의 젖도 주지 못했다(元來からだの弱かった母は一粒種の彼を生んだ後さへ、一滴の乳を与へなかった。)

라는 기술에서 ‘一粒種’라는 것은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이 ‘모친(母)’이 생모 후쿠라고 한다면, 그녀는 이미 아쿠타가와 외 두 자매(장녀 하쓰코初子, 차녀 히사코久子)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一粒種の彼’는 아니다. 따라서 ‘一粒種の彼’라는 기술이 아쿠타가와 집안의 자식으로서 표현된 것이라면 여기서 모친은 양모인 후키(フキ)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여기서 모친(母)은 생모와 양모와의 합성에 따른 모친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친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합성함으로써 광인인 생모의 존재는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친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이 보여진다. ‘퇴직 관리였던(退職官吏だった)’ 양부(養父) 아쿠타가와 도쇼(芥川道章²²⁾1849~1928)는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마침 생후 8개월 된 류노스케(龍之介)를 양자로 맞아들였다. 이 양부 도쇼와 생부 니하라 토시코(新原敏三)를 합성한 부친이 신스케의 아버지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목장을 경영하고 있던

22) 도쇼는 관리출신이었으나 하이쿠나 분재 등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다. 또 재주가 있어서 다다미 수리를 하거나 나무를 직접 베기도 했다. 아쿠타가와 집안 살림살이는 꼼꼼한 그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재주 있고 검약가로 알려져 있다.

생부에 대해 ‘나이 든 그의 숙부(年取った彼の叔父)’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언급한 ‘아쿠타가와 집안의 자식으로서(芥川家の子供として)’라는 부분만을 한정하면 니하라 토시코는 아쿠타가와와 숙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시 「二牛乳」의 이야기로 돌아 가보자.

그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다. 그것은 당시 신스케로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부엌으로 오는(배달되는) 우유병을 경멸했다.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머니의 젖(奶)만은 알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부러워했다.(彼はそのために生まれ落ちた時から牛乳を飲んで育ってきた。それは当時の信輔には憎まずにはいられぬ運命だった。彼は毎朝台所へ来る牛乳の壺を軽蔑した。また何を知らぬにもせ、母の乳だけは知っている彼の友だちを羨望した。)²³⁾

라고 하여,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우유병을 경멸한 것(牛乳の壺を軽蔑した)은 광기로 인해 모친의 사랑을 빼앗긴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젖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태어날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다.(生まれ落ちた時から牛乳を飲んで育ってきた)’라고 하지만, 아쿠타가와가 우유를 먹고 자란 것은 아쿠타가와 집안으로 입양 후의 일이며, 후쿠가 발광하기까지의 7개월 간은 모유를 취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럼에도 ‘태어날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다.’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중의 이야기로써 아쿠타가와와 사실로서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단서는 「一. 本所」의 서두 부분이다.

다이도지 신스케가 태어난 것은 에코인(回向院) 부근이었다.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거리는 하나도 없었다. 아름다운 집도 하나 없었다. (大導寺信輔の生まれたのは本所の回向院(えこういん)の近所だった。彼の記憶に残っているものに美しい町は一つもなかった。美しい家も一つもなかった。)

아쿠타가와가 태어난 지역은 현재의 중앙구 아카이시쵸 세이루카 병원(中央区 明石町 聖路加病院) 부근이다. 본래 소재지가 에코인 근처라고 한다면, 후쿠의 친정 아쿠타가와 집안이 있는 곳이어서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또 아쿠타가는 『조코도잡기(澄江堂雜記)²⁴⁾ 「一. 臘梅(로바이)」에서 아쿠타가와 집안의 16대 손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본 소재지에서 태어난

23) 底本(1987)「昭和文学全集 第1巻」小学館 初版 / 初出(1925)「中央公論 第四十年第一号」1月発行

24) 1925년 발행한『新潮』에 게재, 「臘梅ろうばい」「沙羅の花(사라의 꽃)」은 작품집「梅・馬・鶯おう」에 수록됨.

것과 모친이 약해서 우유로 키워졌다는 것에서, 자신은 아쿠타가와 도쇼와 후키 사이의 적자(嫡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이쇼14년(1925) 4월에 신초사(新潮社)에서 『아쿠타가와집(芥川竜之介集)』이 간행되고 그 권말에 자필연보로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양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모의 발광이 아닌 ‘모친의 병(母の病のため)’ 때문이라고 적었다.

1921년의 중국 여행 이후 건강을 해쳐, 더구나 수면제 상용으로 환각 장애를 가끔 일으키면서 정신이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그러한 가운데 광인이었던 생모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분명해져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아쿠타가와와 심리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6. 결론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의 주인공에게 ‘신스케’라는 가명을 붙임으로써 신스케가 자신이 아닌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아쿠타가와와 유형적 인물로 보아 무방하다. 모친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락 「二牛乳(우유)」에서 주인공 신스케는 출생 이래 단 한번도 모친의 젖을 수유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의 수유도 받지 못한 아쿠타가와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중첩된 부분으로써 신스케가 아쿠타가와 자신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

작품 속 신스케는 ‘수유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줄곧 신경을 쓰면서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이 약한 것도 우유 탓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 여행 이후 수면제 상용은 그에게 환각 장애를 일으키면서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와중에 광인이었던 생모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분명해져 갔을 것이며, 광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쿠타가와와 심리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을 통해 아쿠타가와는 생모에 대해 고백하고 싶었으나 최종적으로 발설하지 못했다. 결국 1926년 작품 『텐키보』서두에 그때까지 거부해왔던 광인이었던 친모에 대해 ‘우리 어머니는 미치광이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에서 아쿠타가와는 종래 언급하지 못했던 모성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이 점에서, 그의 삶 속 숨어있던 모성 인식에 대한 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 關口安義(1999)『芥川龍之介とその時代』筑摩書房、p.89
赤間涼子(2008)『芥川龍之介—告白小説における母親像』九州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編、pp.60-61
芥川竜之介(1925)『『私』小説小見』-『藤澤清造君に』評論『新潮』
_____ (1926)『点鬼簿』角川書房、p.26
_____ (1925)『藤澤清造君に』評論『新潮』新潮文庫、p.68
_____ (1968)『澄堂雜記』『芥川龍之介全集』7、角川書房、p.132
_____ (1977)『芥川龍之介全集』第3卷、東京: 岩波書店、p.515
_____ (1979)『筑摩全集類聚 芥川龍之介全集』第四卷、筑摩書房、p.131
_____ (1986)『芥川龍之介全集』1、東京: 筑摩書房、p.432
_____ (1987)『芥川龍之介全集』4-5、東京: 筑摩書房、p.423、p.448、p.512
_____ (1987)『昭和文学全集 第1巻』『点鬼簿』第1巻、小学館 初版
_____ (1998)『芥川龍之介全集』第二十三卷、岩波書店
菊地 弘(1994)『芥川竜之介—表現と存在』明治書院、p.100
岸田 秀(1991)『群像日本の作家芥川龍之介-芥川龍之介論シニズムの破綻』小学館
김영희(2020)「아쿠타가와(芥川)의 모친인식(母親認識)-保吉物(야스키치모노)『소년(少年)』을 중심으로」『한
국일본어교육학회』94집

<참고자료>

- https://www.aozora.gr.jp/cards/000879/files/25_15244.html (검색일: 2021.03.12.)
<https://blog.goo.ne.jp/utakata96/e/> (검색일: 2021.04.02)
<https://ja.wikipedia.org/wiki/吉本隆明の183講演-ほぼ日刊イトイ新聞>
「玄鶴山房」『魔術』『片恋』-芥川龍之 介作品選 (검색일: 2021.05.11.)

논문투고일	: 2021년 07월 01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7월 2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성(母性)인식

-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의 「二. 우유」를 중심으로 -

김영희

본 연구에서는 아쿠타가와(芥川)의 모친을 둘러싼 인식변화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아쿠타가와 만연의 사소설적 작품『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의 단락 「二. 우유(牛乳)」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쿠타가와(芥川)는 작품 속 주인공에게 ‘신스케’라는 가명을 붙임으로써 신스케는 곧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유형적 인물로 보아 무방하다. 즉 모친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락 「二. 牛乳(우유)」에서 주인공 신스케는 출생 이래 단 한번도 모친의 젖을 수유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기술했으며, 이 부분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의 수유를 받지 못한 아쿠타가와 자신의 경험을 중첩함으로써 신스케는 아쿠타가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신스케는 ‘수유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줄곧 신경을 쓰면서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이 약한 것도 우유 탓이라고 확신한다. 더구나 중국 여행 이후 수면제 상용은 그에게 환각 장애를 일으켜 정신이상(精神病)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와중에 광인이었던 생모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분명해져 갔을 것이며, 광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아쿠타가와(芥川)의 심리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이다.

하지만 아쿠타가와(芥川)는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을 통해 생모에 대해 고백하고 싶었으나 최종적으로 발설하지 못했다. 결국 1926년 작품『덴키보』서두에서 그때까지 거부해왔던 광인이었던 친모에 대해 ‘우리 어머니는 미치광이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에서 아쿠타가와(芥川)는 종래 언급하지 못했던 모성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삶 속에 숨어있었던 모성에 대한 하나의 인식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Akutagawa's Perception of Motherhood

- “Sinnsuke Daidouji's Half Life” from 「二. Focusing on “Milk”」 -

Kam, Young-Hee

In this study, in order to look into the process of changing perceptions surrounding Akutagawa's mother, the paragraph 「二. Milk (牛乳)」 was considered, and its relevance was examined. In conclusion, Akutagawa gave the protagonist the pseudonym 'Shinsuke', so it is safe to see Shinsuke as a tangible person who is projecting himself. In other words, in the paragraph 「二. 牛乳」 (Milk),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the protagonist Shinsuke describes the fact that she has never been breastfed by her mother since birth, and this part of Akutagawa himself, who has not been breastfed once since birth. It is because Shinsuke can know that he is Akutagawa himself by overlapping his experiences.

In the work, Shinsuke thinks that it is a shame as he is constantl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he has never experienced breast-feeding, and is convinced that his weakness is also due to milk. Moreover, the use of sleeping pills after traveling to China caused him to have hallucinations, further exacerbating his fear of insanity. In the meantime, the image of a mad mother must have become clearer, and the psychological conflict with Akutagawa, who did not want to accept the fact that he was a madman's child, surfaced in 『Daidoji Shinsuke's Half Life』.

However, Akutagawa wanted to confess about his birth mother through “Daidoji Shinsuke's Half Life”, but he could not finally reveal it. In the end, at the beginning of his 1926 work Denkibo, he confesses to his mother, who was a madman, and whom he had rejected until then, by saying, ‘My mother was a madman. However, the fact that in 『Daidoji Shinsuke's Half Life』, Akutagawa finally brought up the story of motherhood, which had not been mentioned before, gives a glimpse into a process of understanding motherhood hidden in his life.